

實物 考證으로 본 李朝時代 女性 佩物에 관한 考察

최 옥 자

<目 次>	
1. 序 論	4. 뜻으로 본 三作 노리게
2. 用途 形態 材料로 본 女性 佩物	5. 財寶 價値로 본 女性 佩物
3. 儀式禮節에서 본 女性 佩物	6. 結 論

1. 서 론

이조시대의 여성패물은 재료 의장 용도 종류를 종합해 볼 때 매우 다양하였고 시대적 배경을 특색있게 직접 간접 반증 함으로 실물 중심으로 고찰해 볼 의의를 갖게 한다.

우리는 능히 신라 백제 시대의 여성패물도 다 소나마 실물로 볼 수 있고 이조시대의 패물과 비교 관찰할 때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생활, 취미, 예절을 참작할 수 있다.

실물을 보고 세심하게 분류 탐구 관찰한다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정확성이 보장되는 학문의 길이다.

여기 이조시대 여인의 기쁨과 눈물이 손길 닿는대로 대대(代代)로 스며들 것이 분명하고 패물 하나마다 전설이 서려있는, 사연은 알 길 없지만 예를 들어 보면 쪽두리, 화관은 혼례식, 환갑, 회혼연등 특별한 의식에만 사용되었을 것을 짐작하면 여성의 패물은 즉 이조시대 여성사를 실물에 꿰어 놓았다고도 할만하다.

우리나라, 중요한 문화유산은 임진왜란(1592~1598) 7년 전쟁에 소실 도난 파괴되었다. 여성의 패물도 여기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특히 패물 장식용품은 시급한 생활필수품이

아니었음으로 전화(戰火)에 모든 것을 상실 당하였다 하더라도 국방(國防), 주식(住食) 문제 해결이 긴급하였을 것을 미루어 보아 긴 세월 패물장식은 단절된 상태를 면키 어려웠으리라고 본다. 지금 볼 수 있는 고려 이전의 유물은 전쟁중에 보존된 것이 아니고 모두가 고분 출토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조시대 패물 귀금속은 임진왜란(1592~1597) 이후의 것이 주가 되리라고 본다. 특기할 점은 고려시대 불교가 국교로 되어 백성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내세(來世)에 맡기고 살 수밖에 없었을 때에 비하면 이조시대는 도읍을 개성에서 한성으로 천도 개국한 정치적 혁명 의지가 문화, 예술, 종교의식은 물론 가정생활에까지 직접 강하게 침투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고려시대 불교중심의 생활에서 탈피되어 이조시대는 유교세력이 팽창했고 부처(佛)를 믿고 위하는 것과는 달리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도(道)를 사람의 인(仁)으로 귀일하는데 힘썼으므로 어떤 의미로는 고려시대의 부처(佛)만 위하면 된다는 불교국가에서 인간이 자기수양을 먼저 기본삼아야 한다는, 그런대로 인간중심으로 생각이 변하였고 이에 따라 생활의 본질을 찾게 되고 우리의 의식주가 가난한대

로 새롭게 자리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조시대의 여성 장신구는 그 이전 것과는 달리 의식주의 필수품에서부터 점차 시작되고 도안, 조각된 점을 알 수 있다.

소반의 무늬, 개와, 문살 모양이 장신구에 그대로 새겨지고 십장생, 꽃등, 자연에서 받은 기쁨이 돌이나 식기, 쇠붙이에 그려지고 늘 불안한 전사의 공효에서 위로 받았으며 활입는 부귀, 장수, 다자손 글귀가 노리개가 되고 생활필수품이나 장식품에도 소원과 기도가 겹겹이 서려 있었다. 물론 재물의 가치로도 장만할 수 있었겠으나 그 보다는 일종의 호부(護符)의 뜻을 살려서 금방장이의 의장술이 용잠, 죽잠, 매잠, 호랑이발톱 박쥐삼작 등 모든 것이 여성의 굳은 절개와 마귀를 범하지 못하게 하고 수명장수 오복(五福)을 비는 표징이 되어 몸에 지닌 사람이나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안위하고 기쁘게 하였으니 이조시대 패물의 특징이 된다.

금, 은, 동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귀금속이지만 보석은 별로 없고 옥돌과 수정이 있었기에 여기 우리 나라만의 특색이 있으며 자족 할 줄 아는 패물이 있었다고 본다. 이조시대와 같은 연대의 서양에는 각종 보석이 많이 수집되어 루비, 금강석, 사파이어, 질콘, 에메랄드, 기타 수많은 금은 보석으로 왕관에서부터 서민들의 반지, 목거리에 이르기까지 보석을 쓸 수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패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천연진주, 비취옥, 백옥, 호박(밀화), 산호, 청강석, 금파, 칠보를 조각, 도안, 상징 좋은 의장(意裝)으로 대담하게 매듭과 술, 색채의 조화로 튼튼하게 만들었으니 이 점은 동서고금에 비할 바 없이 잘되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탐구하는 동지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 용도, 형태, 재료로 본 여성패물

이조시대의 여성패물은 그 용도가 대단히 광범위한 점이 특색이다. 이런 점은 우리의 인접국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볼 수 없는, 이 시대의 창의성이 사치, 허영보다는 실용면에서 시작되

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본다.

시대적으로 볼 때 고려(918~1392)가 망하고 474년 쌓아 올린 개성도읍을 버리고 새로 산수를 찾아 한양에 도읍을 꾸미기 시작하였으니 과도기의 혼란, 빈곤을 면할길 없었을 것은 분명하고 역사적 사실에도 역력하지만 이조개국 200년이 되자 임진왜란 7년 전쟁에 궁궐, 사찰, 사가, 모든 건설이 초토로 변하고 인명살생, 전사, 포로되어 국운이 태풍속의 촛불같이 약할 때에 물질생활의 빈곤은 상상도 어려울만큼 극심했음을 또한 기록에서 본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조시대는 임진왜란 이후 구한국때까지 다시 튼튼히 회복 못함으로써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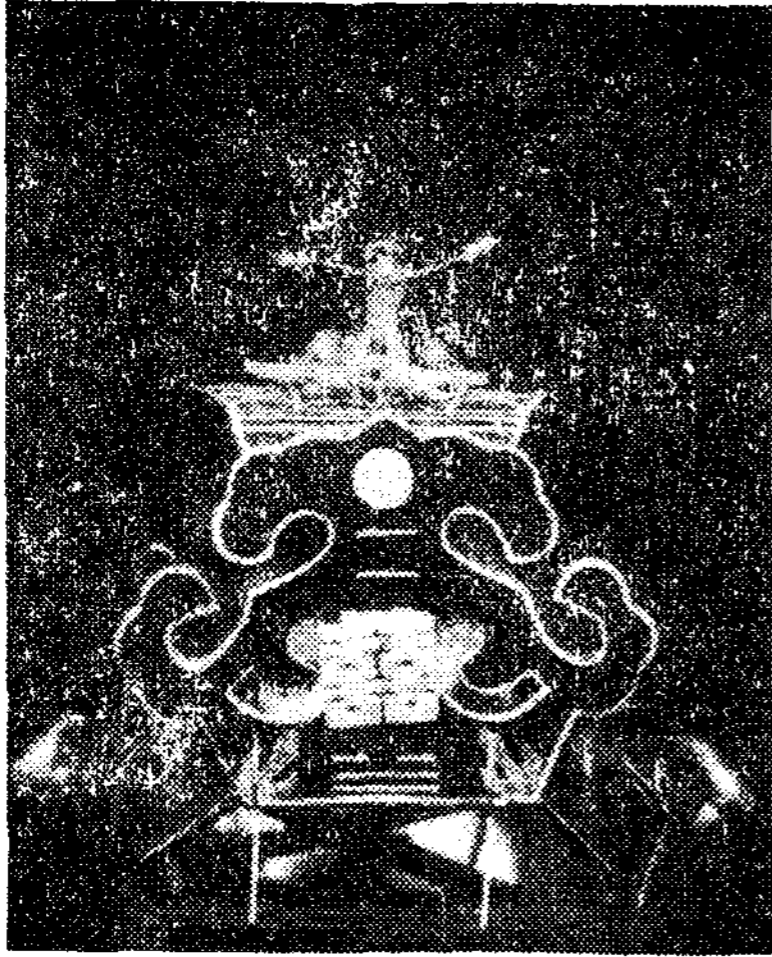
그러므로 패물이다, 노리개다 말하지만 정성과 사랑과 바램(이렇게 저렇게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새로 새맘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알기 쉬운 예로 신라, 백제시대의 그 화려한 금귀고리를 이조시대에 이르러서는 왕실에서도 볼 수가 없다. 이것은 난리를 겪고난 검소한 생활개선에서 변한 것이다. 태평성세(太平盛世)가 아니었기에 관민이 다 없는 것으로 자족하는 마음자세로 살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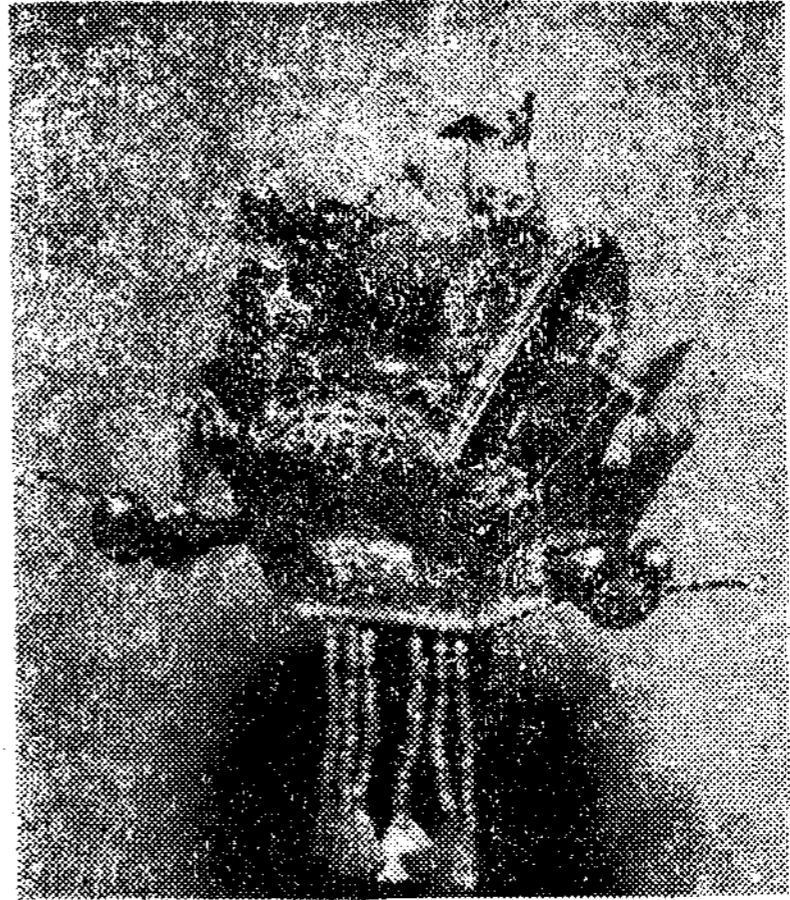
얼마나 가난했으면 서민계급은 청, 홍치마, 도투락당기도 빌려 써서 시집 가는 것이 보통이고 종류 이상 가정도 원삼, 활옷, 죽도리를 세놓는 집이 있어 빌려다 쓴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 풍속은 해방전까지도 답습되었던 사실이다.

유교의 예(禮)를 숭상하는 세상에서 관혼상제(冠婚喪祭)의식에 필요한 패물이 하나, 둘 만들어지고 우선 급한 것이 비녀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전쟁중에 귀금속은 다 없어지고 머리를 쪽틀어야 하는데서 비녀 만드는 것부터 땡기(치녀), 추위를 막기 위한 남바위, 조바위, 풍차, 장도, 바늘쌈등, 실질적인 것에서 많이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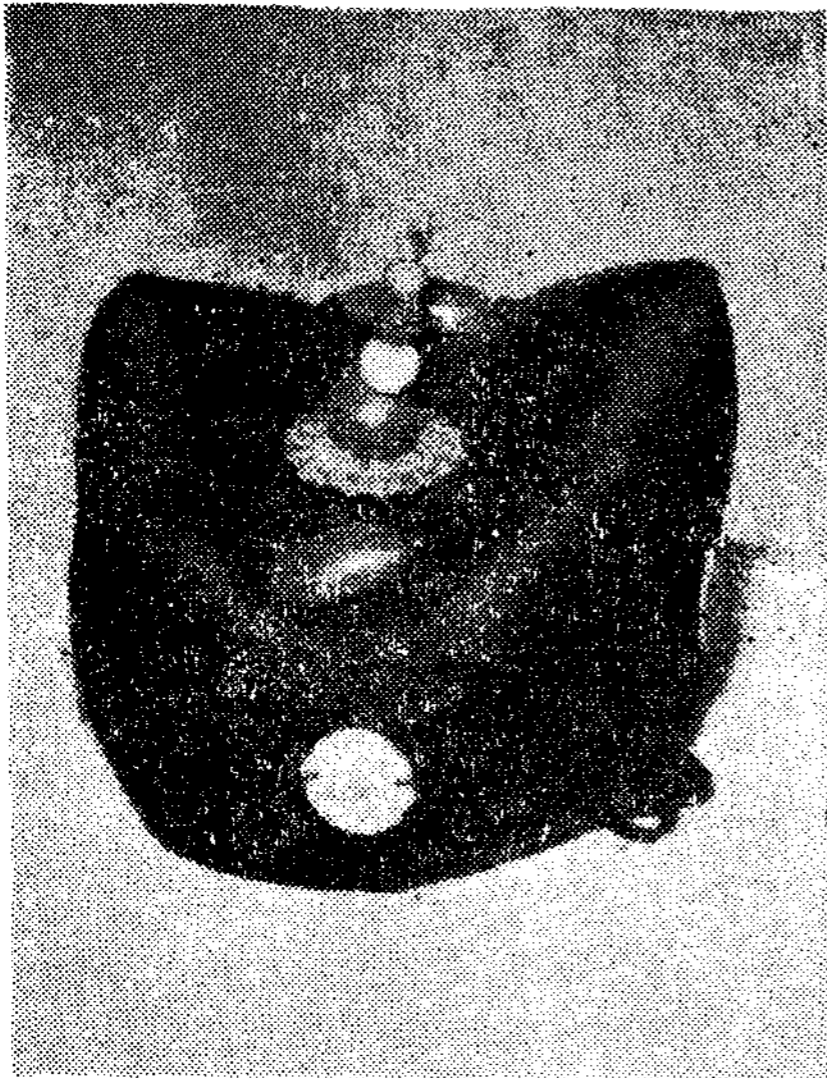
- | | |
|---|------------|
| 1. 冠帽 | 2. 땡기 |
| 3. 指環 | 4. 요패 |
| 5. 비녀, 땡잠, 첩지, 뒤꼬지, 귀우개 | |
| 6. 향갑 | 7. 노리개, 삼작 |
| 8. 호랑이 쌍발톱, 장도, 바늘쌈, 주머니, 괴불노리개, 의복의 단추 | |



왕비 화관



환 관



족두리



아기화관

1. 관모류(冠帽類)

족두리, 화관, 박수무당관, 조바위, 남바위, 아얌후양, 풍차, 아기들의 굴레.

족두리에 장식물로 전후 좌우에 비취, 자만옥 박취문, 수복문을 달고 상부 중앙에 밀화, 자만옥, 진주, 삼색구슬(밀화, 산호, 청강석)을 수직으로 세워 장식한다.

여자가 원삼, 활옷을 입을때(혼례, 환갑잔치) 머리에 얹는 것이다.

조바위, 남바위, 아얌, 후양, 풍차는 머리둘레와 양쪽 볼을 방한하게 만들어져서 머리 위는 열려 있다. 여기 앞뒤를 비단 매듭술 끈을 달 수도 있고 혹은 진주구슬, 비취구슬, 산호구슬

등을 단다.

앞이마와 뒷머리쪽에 수복(壽福)자, 나비, 박취 도안을 새긴 비취옥, 금, 은 장식을 한다. 실용적인 필수품에 장식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은 특색이다.

신라 백제시대의 분모속에서 출토되는 여성 장식품이 금, 은, 비취, 보석으로 조각과 도안 구성이 세계 으뜸 같 만큼 다양하였음을 볼때 금관, 허리띠, 여기 달린 장식품, 반지, 귀고리 팔찌, 목거리등 호화로운 큼직한 장식이 이조시대와 와서는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점을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실질적이고 검소하였다. 왕조가 새로 성장하는 과도기의 민족적 전통과 계속 쳐들어온 전란은 타의 모방할 여유도 가질수 없

이 오직 당장의 아쉬움을 정성으로 연구 개량 보급하고 제한된대로 다듬어 꾸미는데 힘을 합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대상을 이루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부녀자의 궁중에서나 사서민가의 관모가 모두 독특한 우리의 것으로 창의성이 활발하였다. 굴레는 아기 머리에 모자같이 씌우는 것으로 여기에도 각종 장식을 했다.

2. 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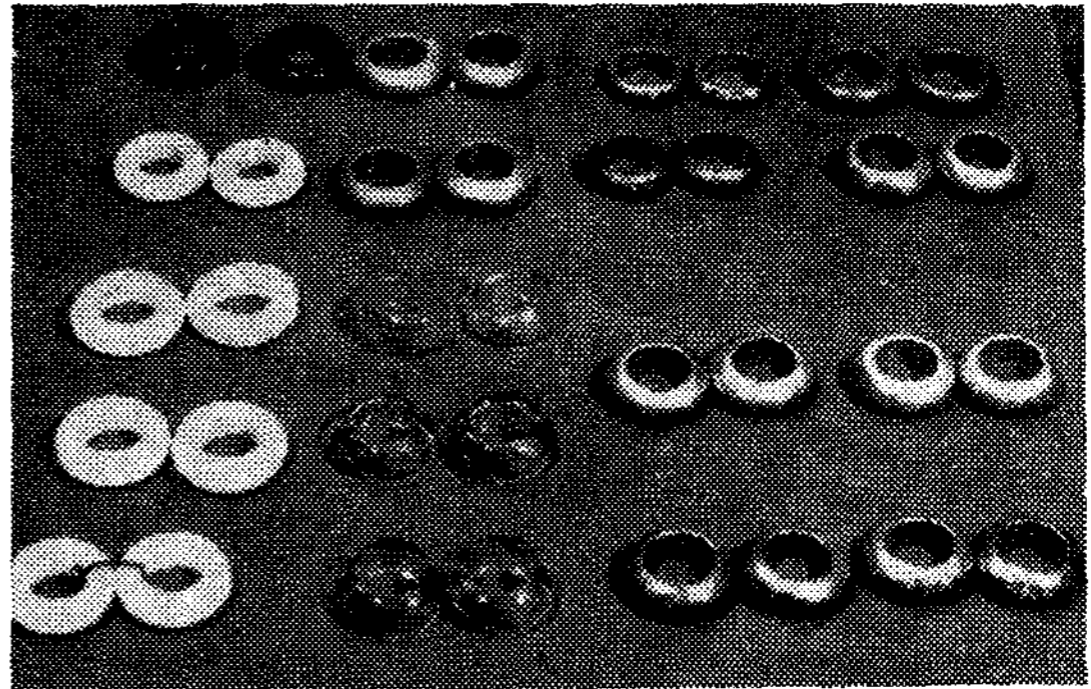
여성의 아름다움을 그 머리 모양에서 찾는 풍속은 동서고금 다를 바가 없다. 그중에도 이조시대의 머리 꾸밈은 그 어느 시대에도 없이 화려하고 우아함을 짐작하게 한다. 다리꼭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비단필을 넉넉히 가진 것같이 부유하게 여겨 왔다. 이런 머리를 잘 장식하기 위해 땡기가 필요하고 땡기에 각종 귀금속을 장식했다.

아기들의 짧은 머리에 긴 판땡기를 매어 주는데 형편대로 뒤꼭지에 칠보나비, 둥근 수복자, 옥(玉)판,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서광(西光)이다. 서광은 애들이 놀다 벌에 쏘이던지 뱀에 물릴 때에 서광을 물에 담갔다가 물린데 얹어놓으면 독이 빠진다고 한다. 즉 평소에는 장식이 되지만 그런 비상용으로 달아준다고 한다. 땡기의 장식이 호부(護符)를 겸하였다.

신부의 용잡에 걸치는 땡기도 진주, 산호, 구슬을 끼어서 비녀 좌우에 늘어뜨린다. 도투락땡기는 혼례예복에 제일 중요한 뒷모양이 된다. 옥, 비취옥, 금파, 칠보등으로 넓고 긴 땡기를 장식한다. 혼례의 안호(安護) 귀신이 새색시에 개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3. 가락지

이조시대 가락지는 궁중에서부터 사서민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필수 패물로 보급되어 왔다. 그 종류로 보면 금, 은, 동, 주석, 납, 흑각, 산호, 금파, 옥비취, 밀화 등 형편대로 값진 귀금속부터 험값 납가락지까지 주로 혼례의식에 백년가약의 표징이 되어 왔다. 춘향전에도 끝없는 사랑을 뜻하였고 옛날 민요에 “굴레같은 은가락지 동이 곱에 다 달았네.”(새 색씨가 물동이를 얼마나 많이 이었던지 시집 올 때 받은 은가락지가 물동이에 다 닳아서 가늘어졌다는 비



각종 가락지(금, 은, 금파, 밀화, 옥, 비취)

유)

우리나라 반지의 역사는 멀리 고(古)신라, 백제 때부터 금지환, 은지환(가는반지)이 출토되었던 사실로 보아 그 재료와 종류는 이조시대에 와서 더욱 다양해졌다. 쌍으로 만들고 굵고 큰 것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조시대 내외, 부부들의 영원함을 상징하고 튼튼한 소박함을 보여준다.

4. 요패(腰佩)

이조시대 요패는 신라, 백제시대의 왕, 비빈 고분의 출토품처럼 순금요패 장식에 비취꼭옥을 줄줄이 단것은 볼 수 없으나 궁중의 대(帶)에서는 금, 은, 옥, 비취, 대모, 판디의 양각 장식을 볼 수 있고 사서민의 혼례판디는 도금, 우각, 흑각으로 만들었으나 이조 후기의 상류층의 여자 각띠는 앞에 물리는 장식만이 금, 은으로 되어 있었다. 궁중가례의 “치적의”는 옥대(玉帶)로 되어 있다.

5. 비녀, 떨잠, 침지, 뒤꼬지, 지우개

신라 백제의 머리비녀나 장식이 평면적이고



비녀

쌍가닥 비녀로 만들어진데 비해 이조시대에 와서 비녀모양은 한가닥으로 통일된 것이다. 이외에 떨잠, 첩지, 각종 뒤꼬지 귀우개가 발달되었다.

여기 자료로는 금, 은, 옥, 산호, 비취, 진주, 철보, 흑각, 주석, 납, 구리비녀가 있었고 그 장식하는 법과 길이의 굵기는 각양각색이었다.

떨잠은 머리 위를 장식하는 것으로 투각 옥판에 진주, 비취, 산호, 구슬을 장식하고 가는 은 용수철 끝에 철보 새, 나비를 달아 약간 움직임에도 파르르 떠는 것을 즐겼던 것이다. 이런 떨잠은 혼례 성장때에 대가집에서나 사용된 호사스런 꾸밈이었다.

궁중에서는 앞머리 가르마(中央)위에 첩지를 얹었다. 궁중의 왕비, 대비, 공주등 계급에 따라 용첩지, 봉첩지(왕비, 동궁비)개구리 첩지(상궁)등 가려 썼다.

뒤꼬지는 쪽머리를 곱게 장식하는 것이고 귀우개는 쪽머리를 곱게 장식하는 것이며 귀우개는 귀를 파기 위해 머리에 상비하는데 여기 뒤꼬지나 귀우개는 끝이 뽀족하여 급할 때에 구급침으로도 쓰이어 졌다. 체할 때에 사관을 눌러거나 졸도할 때 인중(人中)을 찌르고 발바닥의 용천(龍天)을 찌르는 구급법을 옛 여인은 상식으로 알고 있었다.

6. 향갑(香匣)

이조시대의 여인은 향을 좋아 했다. 옷장 속에도 침향, 자단향, 백단향을 넣어 옷속에 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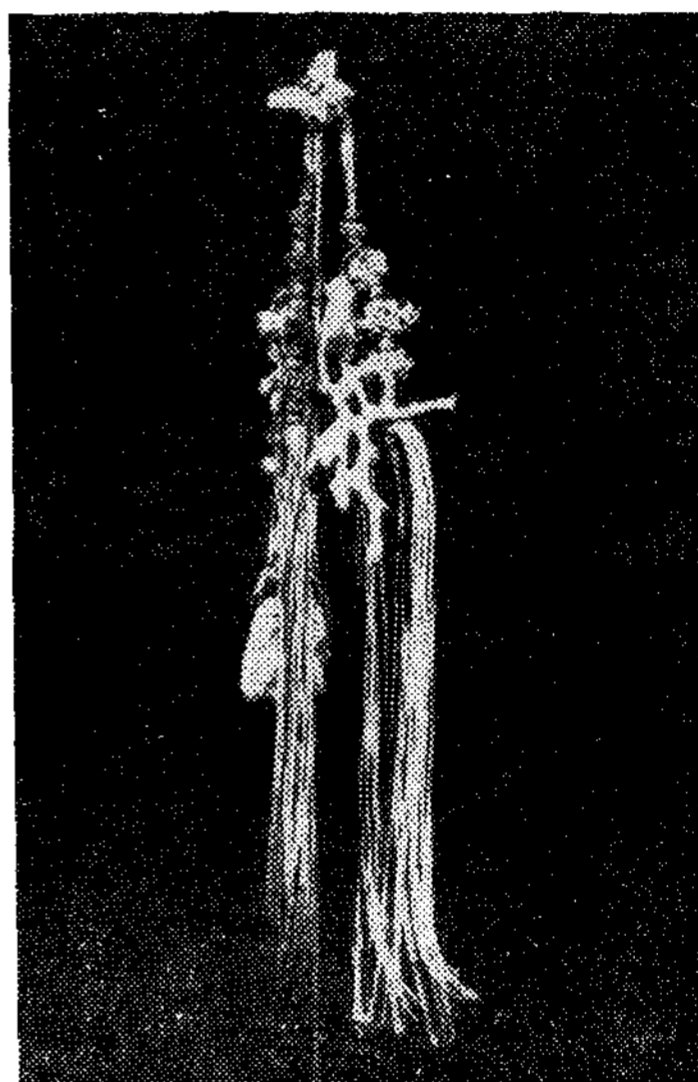


향갑노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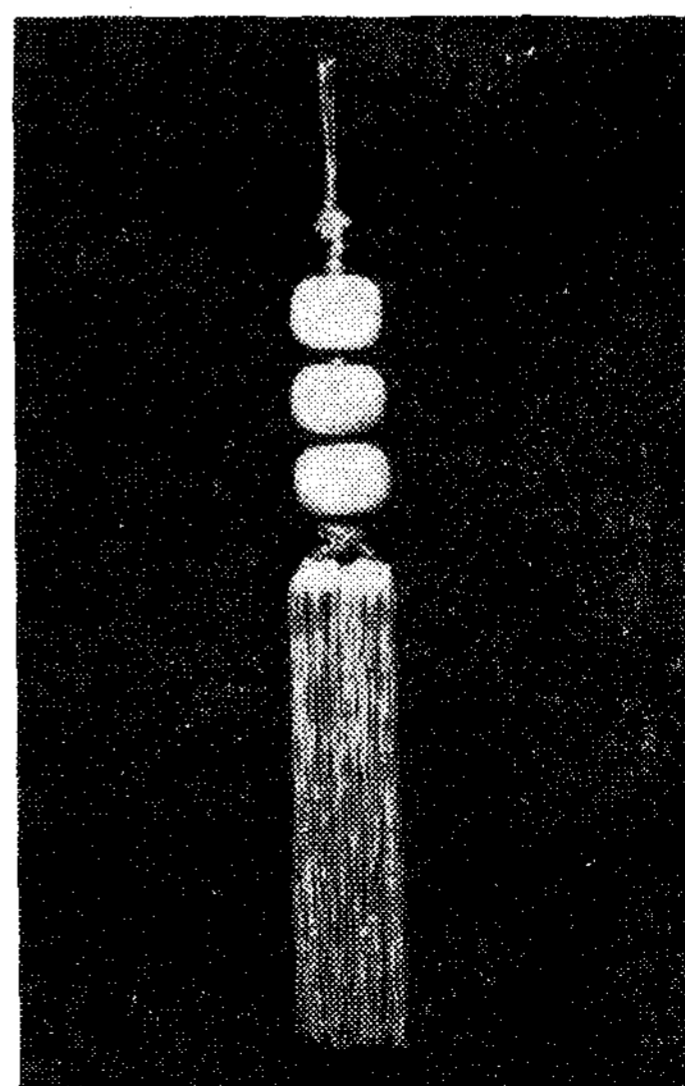
히 배게 하였지만 향기를 늘 몸의 지니기 위해 향갑을 노리개로 저고리 고름에 차고 다녔다. 투각, 옥, 비취, 금, 은, 철보등으로 만들어 그 속에 빨간 비단에 가루향을 싸 넣는 것이다. 향갑은 향기도 좋지만 특히 잡귀(雜鬼)를 쫓는다고 하여 더욱 보급되었던 것으로 안다.

7. 노리개 삼작(三作)

이조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패물 귀금속은 노리개 삼작을 내세우게 된다. 나무가지처럼 굵게 뻗은 자연 그대로 생긴 빨간 산호에 남색 비단 매듭에 꿰고 황금색 주먹만한 통밀화에 양각 새김을 해서 다홍 매듭에 달고 백옥쌍나비에 천연 진주, 청강석, 산호구슬을 철보판에 꿰어 박고 황금색 비단 매듭에 튼튼히 묵직하게 수자복자나 박쥐, 백옥에 세가지를 한데 꿰는 대삼작 노리개는 세계 어디서도 다시 볼 수 없는 산과 바다



삼호작노리개



밀화 삼천주 삼작노리개



대비 산호 밀화옥나비 대삼작

의 보물을 한데 엮어 놓은 걸작이라고 할 수 있고 자잘구레한 것을 싫어하는 이조인의 슬기를 알게 한다.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산호가, 순천 사람이 바다에서 빨간 산호를 구했다는 기록이 있다. 옥. 진주. 산호. 청강색 등을 약으로 갈아 썼다는 동의보감(東醫寶鑑)의 설명을 보더라도 그 가치가 아름다움도 있지만 귀중한 약의 가치로서 높이 본 것도 사실이다.

이외에도 삼작은 여러가지가 있다.

호리병 삼작.

호리병은 허리에 차는 물이나 술을 담는 병으로 잘 쏟아지지 않아 먼 길을 갈 때 편하다. 그런 뜻에서 여성이 슬픔, 노여움, 기쁨을 각각 호리병에 담고 인생의 먼길을 감정을 쏟지 말고 잘 참아 보라는 부덕을 뜻한다고 한다.

투호 삼작

이조시대의 즐거운 놀이(살을 던져 항아리에 세워 넘는다)의 일종으로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든 것이다.

방아다리 삼작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는 시대에 여자가 방아를 잘 짚어야 했고 여성 소유의 농사기구를 노리개에 엮은 것은 일을 노리개처럼 사랑하라는 삶의 지혜를 패물에 엮은 것이다.

박쥐 삼작

박쥐는 이조시대에 오복을 뜻한다 하여 의장 장식에서부터 음식 그릇, 소반, 베개모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오복은 수, 부, 강,녕, 다자손(壽富康寧多子孫)을 의미한다. 복을 비는 마음을 노리개에 전한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노리개가 있다. 그 어느 것도 다 뜻이 있고 바라는 마음이 서려 있는 것이 이조시대 패물의 특색이다.

8. 호랑이 쌍발톱, 장도, 바늘쌈, 주머니귀 불노리개, 의복의 단추.

이상은 직접 생활용품에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종류이다. 지면상 다음 기회에 머루기로 한다.

3. 의식에절에서 본 여성패물

이조 500년은 유교적 바탕으로 생활에절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의 불교문화 의식에서 벗어나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오륜을 숭상함으로 예(禮)의 덕복을 특히 존중함으로 복식문화는 독자적인 창의성을 찾게 되었다.

예절과 의식속에는 고려시대의 내세(來世)를 동경하는 윤회신앙(輪廻信仰)과 달리 현세의 구복(求福)이 짙어졌다. 그러므로 예를 찾는 의식속에는 모든 면에 오복(五福), 수, 부, 강,녕, 다자손(壽富康寧多子孫)을 색채, 문양, 도안구성 소재에 이르기까지 오복의 뜻을 살려 다루어진 점이 특색이다. 여기 귀금속을 다룬 장식품은 더욱 강조되어 있다.

모든 장식이 하나의 기원이고 수호(守護)를 약속하는 표징이 되었다. 혼란한 세대에서 세대를 안위하는 작은 힘이 되었다. 예를 들면 비취옥은 벽사(辟邪)를 한다. 하여 작은 구슬 하나라도 아기 머리에 씌우는 굴레에 달아주고 기뻐한다. 금, 은으로 노리개를 만들어도 여기 양각 또는 음각으로 용호(龍虎), 수복(壽福), 십장생(十長生)을 새김 한다.

뜻으로 볼때 천지(天地), 상하(上下), 좌우(左右), 앞뒤(前後), 내외(內外) 부부 한쌍을 근본 중심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이조시대의 패물은 어느 것이든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 호랑이 발톱도 두개를 맞추어서 쌍발톱으로 노리개를 만들고 가락지는 그 대표적인 좋은 예가 된다. 세계 어디에도 쌍가락지를 끼는 데가 없다.

그러나 이조시대의 지환(指環)은 모두 쌍으로 짝게 튼튼하게 되어 너무 굵어서 금, 은, 밀화, 금과 등 손마디가 넘어난다. 이런 실물을 볼 때 손에 낀다기보다 옷고름에 든든히 매고 크고 복스런 보물의 값진 소유를 즐겼다는 말이 짐작되게 한다.

이조시대 복식에 계절이 분명하듯 장식물에도 계절이 따라 선다. 예를 들면 여름에만 옥비녀, 옥가락지, 비취가락지를 끼었다는 것은 시원한 빛과 돌의 촉감으로 계절을 여유있게 감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조시대 패물의 가장 좋은 특색은 대수롭지 않은 작은 패물도 실용 장식을 위주로 한것과, 뜻으로 여러가지 기쁨, 희망, 안심을 종합했다는 점이다. 가난하여도 예를 갖추어 살줄 알게 교훈과 축복을 담아 보았다.

4. 뜻으로 본 삼작 노리개

삼작(三作)이라 함은 노리개의 대명사같이 불리운 말이다. 대삼작, 소삼작, 중삼작이 모두 노리개 삼작의 크고 작은 이름이 되는 것이다. 대삼작이라고 하면 노리개의 최고의 명칭이다. 으레 궁중에서나 사용된 것이다. 삼작은 가배 혼례의 대표적 예물이 되고 한대(代)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장자부, 장손부(長子婦長孫婦)로 물려 받는것을 본으로 삼는 것이다.

삼작의 큰 뜻은 이조시대 대가족제도속의 안정된 조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삼대(三代)가 한 집에 사는 것이 당연하고 삼대가 한 가정이 되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삼작의 대표적인 것은 오나비, 가지산호, 밀화, 이렇게 이질적인 보물을 노랑색, 남색, 다홍색, 매듭술로 한벌 되게 만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리개 삼작은 하나의 호사스런 장식품으로 보다 가훈을 물려 받는 법이 된다.

삼작, 우리말에는 삼자(三字)를 참 좋아한다. 삼세번, 실패해도 세번까지는 다시 노력해 보라

는 뜻에서 잘쓰는 말이다. 삼배(三拜), 세번 절한다. 깊은 감사, 깊은 사죄를 뜻한다. 천지인(天地人) 삼화(三和)는 우리 생활철학이 되어 대중소(大, 中, 小)의 개념처럼 써어지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보(三寶)의 뜻도 있다. 불보(佛寶), 법보(法寶), 승보(僧寶) 이미 고려시대의 일이지만 그러나 이조시대에 불교의식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었고 다만 생활불교, 구복불교(求福佛敎)로 속화되었던 것이다.

우리말에 삼신(三神)이 있다. 아기가 나면 세살까지 삼신이 살피고 두호하신다고 한다. 삼신은 환인(桓因), 환웅(桓雄), 왕검(王儉檀君)을 뜻한다. 개국조신(開國祖神)을 뜻하는 말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부인(天符印)을 세게 받았다고 한다. 삼작의 시작이다.

노리개 단작(單作)중에는 삼천주(三千珠)가 있다. 세계의 산호, 밀화가 한줄에 길이로 꿰어 있다. 이 뜻은 불교에서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삼계(三界), 즉 과거, 현재, 미래를 뜻하는 불교 신앙에서 나온 명칭이다. 허무한 세상에서 선한 인연과 섭리를 비는 마음을 상징했다.

한개 두개는 평면적인 힘이 되지만 세개가 되면 안정된, 입체적인 힘이 된다. 삼바리 석쇠의 이치를 옛사람이 먼저 알았다. 쓰러지지 않는 평안을 원하는 마음에서 옛사람은 생각하고 튼튼한 믿음을 얻고져 수고를 달게 받았다.

5. 재보(財寶) 가치로 본 여성패물

대체로 이조시대는 난(亂)이 많았고 가난하였다. 전에도 말한 바 임진왜란의 피해가 회복을 못 보고 드디어 한일합방의 비운에 빠진 셈이 된다.

그러므로 별로 재보가 될만한 사치성, 장신패물을 찾아 보기 어렵다. 금, 은, 진주(천연진주임으로 희소하다.) 산호, 밀화, 금과, 대모 호랑이 발톱, 옥, 비취옥(고급 비취는 전연 없다) 자만옥, 수정, 청강석, 서광, 칠보 등 재료로 보면 가짓수도 적고 귀금속에 들지 못할 것도 많다. 그러나 뜻으로 보고 그 제작 솜씨로 볼때에는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독특한

우리의 예술품의 격조를 정립하고 있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재보의 가치를 앞으로도 영원히 지닐 수가 있다. 이조시대 선인들의 믿음, 철학이, 후손을 축복하는 기도가, 알알이 박혀 있는 것이 특색이다. 몇몇 대를 어느 집 귀수에게 전해지고 물려 받고 소중하게 보물로서 훌륭한 지킴이 되었으나 알 길은 없지만 이조시대의 혼란했고 가난했던 역사를 볼때 여성의 긴 침묵의 백인당(百忍堂)사연을 생각하며 왕후의 고분(古墳)속의 출토품이 아니고 조상들의 사랑하는 표정으로 이성지합은 만복지원(二性之合萬福之源)이라는 믿음 위에 전해 내려온 오늘의 실물이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보물로서의 가치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이 크고 귀한 것이다.

패물 자체,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뜻하는 믿음과 소망과 오랜 참음과 기다림에 지치지 않게 하려고 천부(天符)를 상징하는 힘이 높이 서리어 있다.

1. 결 론

이조시대의 여성 패물 장신구는 재료 수집에 애로점이 많다. 문헌에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의식절차에 관한 재료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실물로 볼때 실지로 사용되고 의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인의 생활문화에 직접적

으로 희노애락을 같이 한것은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조시대의 여성사에 함께 다루어져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의식, 신앙, 의료(醫療), 계절등 분류해서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고찰하면 아직 할일이 많고 더 많은 자료수집도 가능하다고 기대한다.

우선 필자가 수집한, 빈약한 범위내에서 정리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이 길에 동행하는 분에게 약간의 참고가 되면 큰 기쁨이다.

參 考 文 獻

- | | |
|-----------|-------------|
| 經國大典 | 盧思慎·崔恒 著 |
| 芝峰類說 | 李睟光 著 |
| 雅言覺非 | 丁若鏞 |
| 王宮史 | 李哲源 |
| 東醫寶鑑 | 許 浚 |
| 朝鮮女俗考 | 李能和 |
| 朝鮮文化史 | 靑柳南冥 著 |
| 服飾歷史 | 中村祐三 譯「白永社」 |
| 三國遺事 | |
| 國寶圖鑑 | |
| 高麗圖經 | |
| 韓國古代史의 研究 | 李弘植著 新丘文化社 |
| 翡翠 | 寺村光晴·養神書院 |
| 朝鮮常識 | 崔南善 著 |
| 大東歷史略 | 兪星濬 |
| 大典會通 | |